

# 파월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돼 있어”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상원 출석해 이달 ‘빅스텝’ 시사 “당분간 제한적 통화정책 필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연준 목표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전체적인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warranted)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pace)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for some time) 제한

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21~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0.5%포인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애초에는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많았으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을 보여주는 1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는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늘고 있는 추세다.

만약 연준이 다시 빅스텝을 밟는다면 지난달 초 회의에서 0.25%포인트까지 낮아졌던 금리 인상 폭을 다시 끌어 올리며 긴축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준은 지난해 잇따라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을 한 뒤 연말에는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낮추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0~4.75%인 기준 금리의 올해 연말 전망치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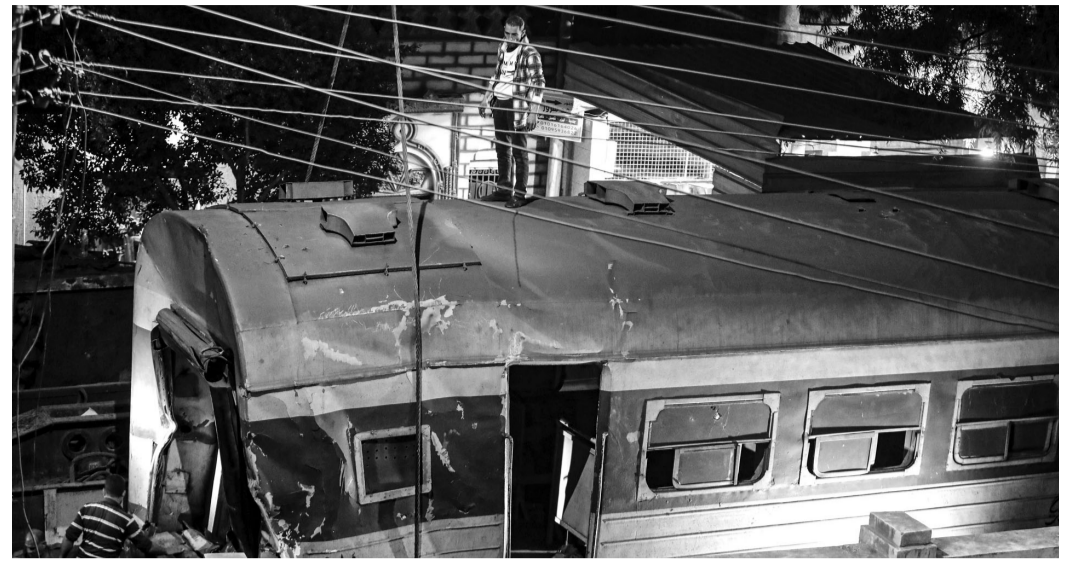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FOMC 후 공개된 이른바 점도표 자료에서 대부분의 연준 이사는 올해 말 금리 수

준을 5~5.5%로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회의에서 이 전망치를 거론한 뒤 3월 발표 예정인 점도표에 대해 “최종적인 금리(전망치)는 지난 12월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를 거론하고 이달 FOMC 회의 전에 발표될 고용지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의 지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봤던(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1월 고용, 소비자 지출, 생산, 인플레이션의 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됐다”면서 “역전 수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우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조이기 위해 강력한(forceful) 조치를 취했으나 긴축의 완전한 효과가 아직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집트 열차 탈선사고 7일(현지시간) 이집트 북부 칼리우비아주 칼리우브시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국은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美, 日에 1조8천억원 조기경보기 판매 승인

### 호주에는 재블린 미사일 판매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 대규모 군사장비 및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일본에 공중조기경보기 등 13억 8천100만달러(약 1조8천200억원) 규모의 군사장비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공중조기경보기인 E-2D AHE 최대 5대와 지원 장비, 부품, 기술 지원 등을 구매하겠다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DSCA는 밝혔다.

DSCA는 또 6천18만 달러(733억원) 규모의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에 대한 호주 판매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재블린 미사일 규모는 최대 255발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과 호주에 대한 군사장비 및 무기 판매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DSCA는 일본의 군사장비 판매와 관련, “이번 판매는 아태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힘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정책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주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호주는 서부 태평양의 중요 동맹국 중 하나”라면서 “호주의 전략적 위치는 역대 정치 및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美, 우크라 미그기에 공대공미사일 장착 검토

### 러시아 북철 대공세 대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춘계 대공세에 대비해 F-16 같은 신예 전투기를 주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보유 중인 옛소련계 미그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은 AIM-120 고급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미그기에 탑재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AIM-120은 애초 미국산 F-16 같은 서방 전투기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다.

만약 이 방안이 성공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일부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북철 대공세로 맞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인 화력과 방공망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F-16 등 현

대적 전투기를 확보해 방공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이런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우크라이나군 조종사 2명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한 주방위군 기지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비행능력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이들이 미국 비행기를 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리들은 대신 좀 더 창의적으로 그 간극을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당국에 AGM-88B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다. 이는 미그기에 부착된 레이더와 방공시스템 같은 지상 타겟을 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M-120 미사일을 미그기에 통합하는 것은 미국이 항공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미사일을 영구,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원래 이 중거리 미사일은 서방에서 제공한 미제 첨단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나사스’(NASAMS)용이다. /연합뉴스

## 오리 그림으로 국왕 풍자 태국 남성 왕실모독죄 2년형

태국에서 오리로 국왕을 풍자한 삽화를 넣은 달력을 판매한 남성이 왕실모독죄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AP와 EFE 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노란색 오리가 등장하는 풍자만화가 실린 달력을 판매한 26세 남성에게 국왕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했다.

인권변호사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은 이 남성이 2021년 달력에 와제랄퐁폰(라마 10세) 국왕을 흉내 낸 노란 오리로 국왕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피고는 매달 다른 오리 삽화가 나오는 달력을 디자인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했다. 법원은 오리 삽화에 국왕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리는 2020년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의 상징이었다. 달력 속 오리는 왕실 구성원처럼 붉은색 띠를 두르고 많은 메달을 달고 있고, 라마 10세를 연상케 하는 숫자 10이 강조됐다.

태국에서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왕실모독죄로 기소돼 15년형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폐지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잠잠하던 시위는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6차 연금개혁 반대시위 7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 도시 디종에서 시민들이 ‘혁명의 시간이다’, ‘우리의 목소리로 침묵을 깨자’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연금개혁 반대를 위한 제6차 전국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또 주요 8개 노동조합은 7일부터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교통, 에너지, 정유 등의 부문에 타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홍콩인 절반, 경제 부담에 “5년 출산 계획 없어”

### 7.4%만이 확실한 출산 계획

홍콩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60여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홍콩인의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내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홍콩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노동단체 홍콩공회연합회가 전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의 53.6%가 5년 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분의 1은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7.4%만이 확실한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은 지난달 홍콩 시민 457명을 대상으로 출산 계획과 정부의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출산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경제 부담과 건강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것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홍콩 신민당은 자체 진행한 설문은 토대로 가정이 아이를 한 명 더 낳도록 하는 데는 남편의 가사 분담, 외국인 기사도유미 고용 시 세금 감면, 정부의 출산지원금 등 3가지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